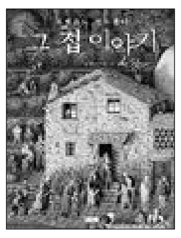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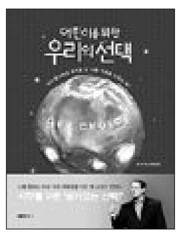
어린이 책꽂이

▲아빠처럼 할래요=귀여운 꼬마 하마 닐스의 일상을 담은 생활동화로 뭐든지 아빠처럼 하고 싶은 아이의 마음을 그렸다. 주인공 닐스는 아빠처럼 커피도 마시고 싶고, 신문도 읽고 싶다. 하지만 아빠는 어른이 되면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커피대신, 커피 위 그림을 맛보게 해주는 등 닐스의 마음을 다독인다. 〈시공주니어·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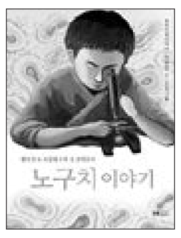
▲콩 하나면 되겠니?=지네에게 물린 뒤 앓아누운 할머니를 걱정하던 아이가 부뚜막을 드나드는 개미 두 마리를 따라 들어간 개미나라에서 할머니를 병들게 한 지네를 물리치고 돌아오는 모험담을 그린 저학년 동화. 친숙한 소재인 콩을 매개로 인간과 개미, 지네 사이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흥미롭게 그려냈다. 〈창비·8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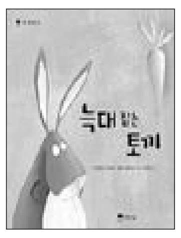
▲그 집 이야기=이탈리아의 한 농가를 무대로 20세기, 일백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사람과 자연, 공간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들의 삶은 어떠했는지 장중한 시와 정교한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림책. 1900~1990년까지 이사, 결혼, 탄생, 죽음, 전쟁, 이별 등 오랜 세월 생의 굴곡진 변화를 시와 그림으로 들려준다. 〈사계절·1만9800원〉



▲어린이를 위한 우리의 선택=환경운동가로 변신한 미국의 전 부통령 앨 고어가 어린이들을 위해 쓴 환경메시지로 오늘날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환경문제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17가지의 선택과 생활수칙이 구체적으로 소개돼 있다. 〈주니어중앙·1만2000원〉



▲노구치 이야기=화상으로 인해 왼손이 엉겨붙은 장애를 딛고 세계 최초로 매독균 순수배양에 성공해 세계를 놀라게 한 일본의 세균학자 노구치 히데요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담았다. 자신의 장애에 좌절하지 않고 더 큰 꿈을 위해 매진하는 노구치의 모습은 어린이들에게 도전하는 삶의 정신을 일깨워준다. 〈웅진주니어·8500원〉



▲늑대잡는 토끼=호랑이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옛 속담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림책. 늑대가 놓은 덫에 걸린 작은 토끼가 지혜를 발휘해 무시무시한 늑대를 물리친다는 이야기를 통해 삶이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힘을 내며 살다 보면 좋은 세상이 돌아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준다. 〈책단배·9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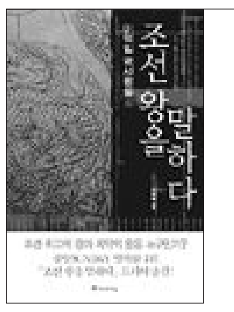
▲엄마가 필요해=책에 흥미를 갖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1~2학년의 눈높이에 맞춰 동화책으로 풍부한 감성과 자유로운 상상력을 길러준다. 아빠랑 단 둘이 사는 선우는 아빠가 학습지 선생님을 좋아하는 눈치가 보이자 심통을 부린다. 하지만 자기를 대하는 선생님의 진심에 마음의 문을 열고 새 엄마로 받아들이게 된다. 〈효리원·8500원〉

▲낙타 카이로에게 배우는 책임=아직 작고 어리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낙타 카이로의 이야기를 통해 책임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더불어 사막은 어떤 자연환경인지, 사막에서 사는 낙타는 어떻게 생겼는 지 낙타의 생태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맑은 가람·9000원〉

연산군·광해군 등 '조선왕 8인' 바로보기

조선 왕을 말하다

이덕일 지음



이덕일은 독자들에게 가장 인지도가 높은 역사 저술가 중 한 명이다. 뚜렷한 관점으로 한국사의 핵심 쟁점을 명쾌하게 풀어내는 그의 글쓰기는 역사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다. 1997년 '당쟁으로 보는 조선 역사'를 시작으로 '조선왕 독살 사건',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사도세자의 눈물' 등 조선 관련 서적들은 사람들에게 조선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제공했다.

이씨가 이번에 펴낸 '조선 왕을 말하다-이덕일 역사평설'은 조선 왕들의 업적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핵심 쟁점들을 파헤친 책이다.

저자는 '악역을 자처했던 임금'(태종과 세조), '신하들에게 쫓겨난 임금'(연산군과 광해군), '전란을 겪은 임금'(선조와 인조), '절반만 성공한 임금들'(성종과 영조)로 카테고리를 나눠 8명의 임금을 분석했다.

저자는 서문에서 "한 인물의 실제 행적은 과거 기록을 남긴 사람들의 목적 지향성에 의해 일정 부분 가려질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조선 사대부들의 시각이었던 성리학적 관점과 당파적 관점을 버리고 임금들의 행적을 살펴보라고 권한다.

저자는 '폭군' 연산에 새로운 시선을 던진다. '붓'을 잡은 권력 사대부들의 그의 폭정을 부풀려 본질을 왜곡했다는 설명이다. 저자는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의견은 다르다. 그러나 세상에는 늘 의견을 사실로 만들려는 세력이 존재해왔고, 대중들은 여기에 속지만 대부분 진실이 드러난다. 하지만 그 의견이 수백년을 이어오는 경우가 있고 연산군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적고 있다.

저자는 '중종실록' '연산군 일기' 등에 기록된 1차 사료들을 꼼꼼히 분석, 그가 백성에게는 결코 폭군이 아니었으며 조선 최고의 음란한 임금도 아니었음을 이야기한다.

반면 '리더는 시대적 소명을 인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높은 지적 능력이 요구된다. 연산군에게는 세조의 쿠데타로 형성된 훈구 세력을 약화시키라는 시대적 소명이 주어졌다. 그러나 이를 인지할 만한 지적 능력이 부족했던 연산군은 거꾸로 훈구의 정적이자 자신의 우군인 사림을 억압했다'며 그의 정치적 한계를 꼬집기도 한다. 세력 관계가 기본인 정치에서, '고립된 권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시대를 앞서갔으나 신하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통합에 실패해 외롭게 몰락한 광해군, 불투명한 왕위 계승으로 재위 기간 내내 정통성 컴플렉스에 시달리다 전란을 겪으면서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선조, 어린 나이에 즉위했지만 '때'의 중요성을 기다려 신진 사림에게 탄핵권과 언론권을 주고 시대의 금기에 맞서는 등 '기다림의 정치'를 실현한 성종 등의 이야기도 재미있게 풀어나간다.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시대를 읽는 능력이다. 시대를 읽는 능력이 있어야 미래를 조망할 수 있다. 반대로 시대를 읽지 못하면 사회를 과거 지향적으로 끌고 갈 수있다. 사회 통합은 좌절되고 각종 소모적 논쟁으로 시끄러워 진다. 그래서 시대를 읽지 못하는 인물이 권좌에 오른 사회는 여러 부분에서 불행에 처하게 마련이다.' 등 지방선거가 끝난 지금, 정치인들이 새겨들을 만한 글구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 〈역사의 아침·1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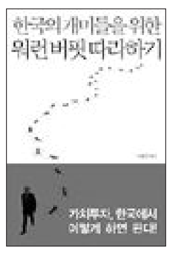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연산군이 귀향 가서 죽은 강화도 교동도의 사당에 걸려있는 연산군 부부의 초상화. 폭군이라는 사대부의 굴레에 갇혔던 연산군이 오히려 민간에서는 신앙의 대상이었음을 보여준다. 〈역사의 아침 제공〉

개미들 돈 잃지 않게하는 투자

…워런버핏 따라하기

조용준 지음



주식투자로 세계 최대 부자반열에 오른 워런 버핏(Warren Edward Buffett)의 투자철학은 간명하다. 첫째 투자원금을 잃지 않는다. 둘째는 첫 번째 투자원칙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17년 동안 증권가에서 잔뼈가 굵은 에널리스트인 조용준씨는 버핏의 투자방법만 따라하면 한국의 개미들도 주식시장에서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한국의 개미들을 위한 워런버핏 따라하기'를 냈다.

버핏 투자철학의 정수는 가치투자다. 기업의 가치를 보고 주가를 판단해서 충분히 저평가됐을 때 장기투자하면 손실위험이 줄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투자자가 고개를 갸웃거릴 투자원칙이지만, 버핏은 이 투자철학을 바탕으로 지난 1965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20.3%라는 경이적인 수익을 일궈냈다.

버핏은 네 가지 가이드 라인을 충족할 때 투자를 결정한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기업을 산다.' '사업의 장기전망을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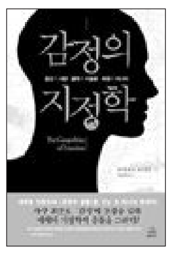
조씨는 "주식투자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가치투자를 제대로 배우면 투자대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력이 강한 기업이 많은 한국에서 가치투자는 바로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부키·1만4000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감정을 지배하면 세계가 보인다

감정의 지정학

도미니크 모이시 지음



1993년 새뮤얼 헌팅턴은 '문명의 충돌'에서 "문명의 충돌이 세계정치를 지배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전 세계 사상계에 대지각변동을 일으켰다.

프랑스 국제문제연구소 고문인 도미니크 모이시는 이같은 새뮤얼 헌팅턴의 주장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최근 펴낸 '감정의 지정학'에서 "감정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지정학적 충돌이 '감정'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헌팅턴이 예측한 것처럼 서구를 상대로 한 아시아와 이슬람 세계의 동맹 조짐이 아직 보이지 않는데다 중국과 인도가 무책임하고 위험한 혁명국가라기보다는 현상 유지에 만족스러워 하는 강대국으로 행동한다는 것. 2008년 8월 러시아와 그루지야 간 전쟁도 감정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루지야가 독립을 요구하는 친러시아 자치영토 남오세티야를 침공하자 자국민 보호 명목으로 무력 개입한 러시아는 이를 통해 냉전에서 느낀 굴욕감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는 분석이다.

저자는 세계의 지정학적 정세를 '두려움'과 '희망' '굴욕' 등 세 가지 감정으로 분석한다.

〈랜덤하우스코리아·1만3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현대문명 속에 숨쉬는 그리스 신화

뉴욕에 헤르메스가 산다 1

한호림 지음

1992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라는 영어책으로 밀리언 셀러 작가가 됐던 한호림씨가 이번에는 신화 책을 써냈다.

'뉴욕에 헤르메스가 산다 1'은 현대 최첨단 문명과 생활 속에서 살아 숨쉬는 그리스 신화을 탐색하는 책이다.

책 제목에는 뉴욕이 언급되지만 그의 발길은 한국을 비롯, 아시아·유럽·남미 등 전 세계를 향해 있다.

'개그콘서트'처럼 유쾌하게 써내려간 책을 읽다 보면 신화에 대한 지식이 차곡차곡 쌓인다.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에 살아있는 아테나의 흔적, 승리의 여신과 나이키 미사일, 대장장이 신과 기관포 발간포, 청소년에게 큰 힘이 될 멘토 등 다양한 신화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특히 저자가 30년간 그리스 신화의 흔적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찍은 2000여장의 사진과 재미있는 일러스트레이션도 볼거리다. 영어책을 쓴 능력을 십분 발휘, 영어 문화권에서 꼭 알아야 할 단어와 유래 등도 재미있게 소개하고 있다. 특히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책집한 아름다운 조각 작품과 미술, 건축, 간판, 풍경이 어우러진 세련된 디자인 책이기도 하다.

6월 중 '오이디푸스와 얼짱 괴력녀 스핑크스' 등 다양한 신화 이야기를 다룬 2권이 출간될 예정이다.

〈웅진지식하우스·1만65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FAX)223-1772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젼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리울공인중개사
☎ (063)583-7788
핸 010-8004-5900
(전북 서해안, 새만금 전문업소)
새만금~변산~고사포~격포~상록~모항 해수욕장까지의 투자 벨트형성

▶펜션건물(투자,직영,임대)
• 대지 300평 건물 140평 : 매가 7억
- 직영시 월 수입 최저 1300만원 이상 발생
- 융자 2억 이상 가능

▶투자용 펜션 용지
• 150~300평 : 평당 50~100만원
- 해수욕장 주변으로 배산임수를 갖춘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곳으로 투자 최적합.

▶투자용 전원주택 용지
• 150~300평 : 평당 25만~35만원
- 새만금 밀집지역을 탈피하고 한가로운 전원 주택지를 찾는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새만금 관광시대 임박으로 팬션투자시 광주지역 원룸부지의 절반 금액으로 수입은 3배이상 금리는 년 25%이상 보장되는 물건만 취급
※ 2010년 4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 개통으로 지금이 투자적기!

아담공인중개사
010-3616-8698
062-233-2222

•태양광부지 구함•

나대지.
◦서구 쌍촌동 호남대 건너편 구장군관사 1,845㎡. 제1종일반주거지역. 10m진입로. 매매가 3.3㎡당160만원. 종교시설. 요양원적지.

식당. 전원주택.
◦광산구 선암동 호남대옆 3,458㎡ 3.3㎡당 100만원.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완료. 조망양호.

전원주택. 종교시설용도
◦광산구 산월동 보훈병원앞 9,722㎡ 3.3㎡당 60만원. 자연녹지지역. 분할가능.

농장. 주말주택.
◦나주 세지면 송제리 7,385㎡ 3.3㎡당 48,000원. 보전관리지역.
◦나주 왕곡면소재지 부근 7,410㎡ 3.3㎡당 35,000원. 계획관리지역.
◦나주 봉황면 각동리14,093㎡. 3.3㎡당 48,000원. 계획.생산관리지역.
◦영암 군서 양장리 19,098㎡ 3.3㎡당 35,000원. 생산관리지역.
◦영암 덕진 영보리 14,414㎡ 3.3㎡당 35,000원. 생산관리지역.

식당. 사옥.
◦서구 마륵동 서남대병원 앞 대지 1,337㎡. 연면적(2층)400.2㎡. 매매가 11억.
◦서구 농성동 구 한전앞 대지 719.7㎡. 연면적(3층) 328.9㎡. 매매가 11억.

전원주택.
◦북구 화암동 대지433㎡. 전임1,994㎡ 구 주택2동. 매매가 1억8000만원. 조망 경관양호.

GG경매컨설팅(주)
공인중개사 : 강영희
☎062)364-8700
H.P010-4608-3700

▶아파트

지역	소재지	아파트명	면적㎡/평	감정가	최저가
광산구	월계동	모아	118/36	1억2천	8천4백
남구	주월동	명지	158/48	1억3천	9천1백
	진월동	삼익	109/33	1억1천5백	8천
	봉선동	무등파크	172/52	2억1천	1억4천7백
동구	소태동	한국아델리움	171/51	3억5천7백	1억8천9백
	산수동	무등타운	161/49	2억	1억4천
	금남로5가	무등맨션	175/58	1억2천	8천4백
북구	매곡동	서광인텔파크	109/33	1억2천5백	8천7백
	문흥동	우미2차	109/33	1억	7천
	연제동	현대	205/62	1억4천	9천8백
	용봉동	삼성	161/49	1억4천	9천8백
	용봉동	현대	158/48	1억2천	8천4백
	운암동	아이파크	198/60	4억5천	3억1천5백
	운암동	현대	109/33	8천9백	6천2백
	우산동	현대	224/68	1억9천	1억3천3백
	일곡동	벽산	105/32	1억2천	8천4천
	일곡동	삼호	145/44	1억7천	1억1천9백
	임동	한국아델리움	109/33	1억8천	1억2천6백
서구	금호동	미래주은	105/32	1억4천8백	1억3백
	마륵동	상무자이	145/44	3억2천	2억2천4백
	마륵동	희망가	109/33	1억6천	1억1천2백
	쌍촌동	광명하이츠	109/33	8천3백	6천8백
	쌍촌동	호반리젠시빌	112/34	1억5천4백	1억7백
	쌍촌동	광명하이츠	165/50	1억3천5백	9천4백
	풍암동	새한센시빌	109/33	1억4천	9천8백
	풍암동	sk-view	154/58	3억3천	2억3천1백

▶상가주택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고
광산구	비아동	610/461	3억3천3백	2억3천3백	
	신창동	225/468	4억3천3백	3억3백	3층건물
	우산동	221/540	2억7천5백	1억5천4백	4층건물
	월곡동	217/525	2억7천7백	1억9천4백	3층건물
동구	지산동	187/660	4억1천3백	2억8천9백	4층건물
북구	문흥동	271/813	5억8백	3억5천5백	4층건물
	신안동	229/649	4억3천7백	2억2천3백	4층건물
	일곡동	301/525	4억7천4백	3억3천2백	3층건물
	중흥동	558/1318	11억2천3백	5억3백	4층건물
	중흥동	343/1263	7억2천1백	5억4백	4층건물
	풍향동	125/197	2억1천7백	1억5천2백	2층건물
서구	양동	415/2244	16억7천7백	4억3천1백	8층건물
	농성동	239/900	6억6천5백	2억9천8백	5층건물

▶상가주택

지역	소재지	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고
서구	쌍촌동	217/449	2억4천5백	1억7천2백	3층건물
	쌍촌동	832/1174	18억5천3백	12억9천7백	3층건물
	쌍촌동	205/325	3억4천8백	2억4천4백	3층건물

▶근린상가

지역	소재지	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고
광산구	월곡동	35평	2억3천9백	1억3천3백	우석빌딩
남구	봉선동	18평	5천3백		라인2차
	송하동	30평	1억2천	6천7백	아파트단지상가
북구	양산동	16평	2억5천	5천2백	아파트단지상가
서구	쌍촌동	58평	3억6천5백	1억3천	베어스타운
	치평동	125평	11억	7억7천	골든유토피아

▶근린시설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광산구	우산동	554/1011	9억9천3백	6억9천5백
	월계동	1492/997	22억	15억4천
남구	월산동	264/1527	12억4천2백	8억6천9백
동구	금남로5가	264/926	7억1백	4억9천7백
	금남로4가	317/1220	17억6천1백	7억8천9백
	궁동	261/1112	16억1천	10억3천
	궁동	237/1028	10억9천1백	6억1천1백
	지산동	155/515	3억5천7백	2억5천
북구	누문동	38/208	13억2천6백	9억2천8백
	신안동	504/1700	12억8천6백	7억9백
	용봉동	153/188	2억7천6백	1억9천3백
	오치동	394/878	5억6천2백	2억5천1백
	풍향동	536/1593	12억8천1백	3억6천7백
	풍향동	536/1593	12억8천1백	3억6천7백
서구	쌍촌동	542/845	11억3천6백	6억3천6백
	농성동	787/820	9억4천7백	5억3천

▶원룸/빌라/다세대/오피스텔

지역	소재지	명칭	면적㎡/평	감정가	최저가
동구	산수동	원룸	462/697	7억1천4백	4억9천9백
	지산동	이안리츠빌	178/54	2억6천5백	1억1천8백
	지산동	원룸	187/660	4억1천3백	2억8천9백
남구	월산동	덕림빌라	330/461	6억3천	3억4천7백
북구	유동	원룸	214/499	5억1천6백	2억8천9백
	풍향동	대주빌라	198/60	1억2천	8천4백
서구	치평동	렌드피아	16평	5천4백	3천7백
	풍암동	원룸	210/374	3억3천2백	1억8천6백

▶토지(전/답/임야/대지)

지역	소재지	지목	면적㎡/평	감정가	최저가
광산구	광산동	전,대지	2168/656	7천8백	6천3백
	운남동	답	651/196	8천	5천6백
동구	운림동	전,답	6790/2054	13억2천7백	9억2천8백
나주시	동강면	답	5000/1512	5천	3천5백
	봉황면	과수원	5010/1515	1억6천3백	1억3천1백
	남평읍	임야	12297/3719	2억3천8백	
	대호동	임야	22116/6690	1억1천9백	8천3백
	봉황면	임야	105124/31800	5천	
담양군	월산면	전	843/255	1천	4백
장성군	삼서면	전	3645/1102	4천3백	3천
	남면	전	751/227	2천2백	1천8백
	동화면	답	1093/330	1천4백	9백
함평군	함평읍	임야	69840/21126	6억4천7백	4억5천2백
	함평읍	답	19200/5808	2억1천1백	1억6천8백
	학교면	임야	9300/2813	3천2백	2천2백
	월야면	임야	9223/2789	1천3백	
화순군	도곡면	대지	470/142	1억3천6백	7천6백
	동복면	임야	15769/4770	1천8백	1천
영광군	군남면	감과수원	39634/11989	3억4천2백	2억 4천
	군남면	감과수원	18775/5679	1억5천1백	1억 6백
	군남면	목장용지	39967/12090	1억6천7백	1억1천7백
	홍농읍	답	4011/1213	3천2백	2천 2백
	백수읍	답	7160/2165	5천8백	

▶주택

지역	소재지	면적㎡/평	감정가	최저가
광산구	남산동	681/88	7천2백	5천
동구	지산동	344/133	1억4천6백	6천5백
	산수동	229/167	1억8천	9천
남구	주월동	175/185	1억4천3백	5천1백
	주월동	196/207	1억4천5백	1억1백
	월산동	206/196	1억5천5백	8천7백
	봉선동	204/210	1억6천7백	1억3천4백
북구	오치동	167/177	1억2천	8천4백
	두암동	201/156	1억4천2백	7천9백
	신안동	198/203	1억6천6백	9천3백
	우산동	261/227	2억8백	1억1천4백
	운정동	1018/138	2억1천	1억4천
	청풍동	2522/140	4억1천8백	2억9천1백
서구	농성동	203/192	1억6천2백	1억2천9백
장성군	황룡면	660/138	6천5백	

• 위치:법원입찰장 건너편 • 권리분석-현장답사-입찰대행-낙찰(잔금부족시 최저금리 대출알선)-명도(이사)